

38년생 김한옥 다큐멘터리 기획의도

2011년 루믹스 카메라를 갖게 되자 나는 가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기 시작했다. 꼬박 10년 동안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카메라에 담았다. 한 달 전에는 38년생 김한옥은 문경에서 괴산으로 시집을 오고 대전 회덕을 거쳐 청주에 오기까지 삶에는 어떤 곡절이 있었고 무슨 힘으로 이겨냈는가 대한 인터뷰를 삼 주에 걸쳐서 했고 김한옥의 자식과 손자, 손녀들이 개신동 집을 찾을 때마다 가족에 대해 다양한 인터뷰를 했다.

김한옥의 어린 시절은 외지로 떠도는 아버지와 새엄마의 혹독한 매질의 연속이었다. 늘 배가 고파 옆집의 아줌마네 집에서 밥을 얻어먹어야 했다. 문경 새재를 넘어 충북 괴산군 연풍면으로 시집을 와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누이가 13명이나 되는 층층시하에서 오직 참고 또 참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대전 회덕으로 이사를 와서는 생계와 아이들 교육으로 눈코 뜰 사이가 없었다. 오직 억척같은 생활력으로 버티어 냈다. 하지만 6남매 자식들은 그런 김한옥의 희생을 모른 채 제각각의 문제를 일으켰다. 그럴 때마다 김한옥은 언젠가는 사람 구실하고 잘되겠지 하고 바라고 자식들을 보듬어 안았다. 인천으로 이사를 하여서는 지독한 생활고를 겪어야 했으며 설상가상으로 김한옥은 위암 판정을 받고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 그때 김한옥은 아직 키워야 하는 자식들이 있고, 건사해야 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으니 꼭 살아남아야 한다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암을 이겨냈다. 하지만 삶의 역경은 지속되었다. 늘 부자가 되겠다고 발버둥을 치던 큰아들이 간암으로 먼저 저세상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남편은 뇌경색을 앓게 되었고 고향과 가까운 청주로 이사를 하자고 했다. 김한옥은 자기 몸을 지탱하기도 힘이 드는데 남편의 병수발을 5년 동안 했고 남편은 품 안에서 임종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 굳게 믿고 실천을 했다. 김한옥이 살아온 세월은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시대마다 새로운 슬로건이 사람들을 기대하게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못배운 김한옥은 공부 많이 하고 두루 경험한 사람들이 나랏일은 잘 운영할 것이고 집안일은 어른과 남성들이 할 터이니 그분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다 어쩌다 한마디 하면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뭘 안다고 떠드느냐”였다.

김한옥은 생을 정리하려는지 그간 평생 모은 돈으로 살아오면서 다하지 못한 삶의 숙제와 마음의 빚을 갚으려 한다. 형편이 어려워 큰딸이 결혼할 때 해주지 못한 이불을 사주고 싶고, 남편 없이 홀로 사는 며느리에게는 인천 부평 살 때 주택대출금을 대신 내주었던 빚을 갚으려 한다. 6남매 중에서 키울 때 제대로 보살펴 주진 못했지만, 김한옥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쌍둥이들에게는 결혼 비용을 대려고 한다. 쌍둥이들의 나이가 49세인데 아직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죽기 전에 결혼식을 보고 싶은 것이다. 지금까지 김한옥은 살아오면서 늘 어른들의 뒤치다꺼리를 했고 자식들의 그림자 역할만 하는 단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김한옥이 주연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귀를 열고 김한옥의 살아온 곡절과 살아낸 의지 그리고 생을 다할 때까지 한반도 놓지 않았던 애정의 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김한옥은 이렇게 말한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다. 세수하고 옷 입고하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야. 어떤 경우도 남을 해치는 일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악한 사람도 기다려주면 다 착한 마음으로 돌아선다. 내 손으로 꽃도 자손들도 잘 자랐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죄를 짓지 않으며 살려고 했는데 혹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은 줄 모른다. 알고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그럼 죽음도 두렵지 않다.”

김한옥은 죽은 나무에 천 번의 물을 주면 살아난다는 마음을 실천했다. 이제는 38년생 김한옥의 일생을 보자. 김한옥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살아갈 날을 위해….

이 작품의 기획 의도는 한 여자의 일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이었으며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하였는가 반추하여 보고 그런데도 우리네 어머니들이 모든 것을 품어 안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